

송일국·이나영 '모범 납세자' 표창



밸트 송일국(사진 오른쪽)과 이나영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송 씨 등은 5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납세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쌍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기증, 유방암퇴치 운동 등에 앞장섰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259명과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78명, 우수관서 8개기관 등에 대한 표상이 실시됐다.

전도연, 6살 연상 사업가와 열애



톱스타 전도연이 지난해 11월부터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지 일요신문이 전도연은 이미 청담동에 신혼집으로 고급빌라를 마련했으며 결혼을 위해 외국에 머물고 있는 양 가족들이 입국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

전도연의 소속사 HQ사는 이더스는 전도연이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성은 귀공자 타입의 외모를 지녔으며 보스턴 등지에서 유학한 사업가라고 전했다. 전도연은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서로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라 덴마크 前 왕자비

왕실 사진사와 결혼, 이젠 '평민'



알렉산드라(42) 전 덴마크 왕자비가 15세 연하인 왕실 사진사 마틴 요에르겐센과 지난 3일 코펜하겐에서 결혼했다고 덴마크 언론이 보도했다.

알렉산드라 전 왕자비는 재혼으로 더 이상 왕실 가족이 아니며 프레데릭스보 공작부인으로 불릴 것이라고 덴마크 언론은 전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화학지원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수정(여·27·사관후보생 110기) 대위는 공군 내 2명뿐인 여군 화학 장교다. 기본 군사 훈련단의 화생방 교관을 거치면서 한 때

면까지 그 내용은 다채롭다.

특히 '진료증 주의하지 않으면 치과 의사의 간염 감염률은 100%' 등 흥미로운 주제들도 종간 종간 섞여있어 디루는 내용에 비해 그 글을 풀어내는 방식과 설명은 지루하지 않다.

저자는 1990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광주시 회장직에 있으면서 '의료사고 예방의 말씀'이란 서신형 글을 써서 광주시 치과의원장을 앞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보면 '의료사고 예방의 말씀'을 기초자료로 10여년 동안 내용을 더하고 빼고 보완하면서 결국 이번 책을 완성했다.

박 의장은 지난 해 4월 29일 가진

치과의사협회 대의원대회에서 의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윤리헌장을 공포하고 63개항의 윤리지침을 만들기도 해 의사 윤리에 대해 남 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박 의장은 "의사와 환자들이 이해 부족으로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들은 의사윤리를 지켜 믿음을 얻고, 환자들은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해 이해를 줄이는데 이 책이 기여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1966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박 의장은 군의관으로 월남에 파병된 뒤 제대한 1974년 현 광주 동구 황금동에 개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군 첫 여성 화생방지원대장 '탄생'

전남 과학고 출신 제1전비 조수정 대위

훈련병들과 그 냄새를 맡았던 장교다. 지휘관인 조 대위를 포함해 부사관과 병사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화학 지원대는 적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어계획을 수립, 화학·생물화·방사능 독성물질을 탐출하고 재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 과학고와 서울대 식물생산과 학부를 졸업한 조 대위는 학창시절 해군 대대로 복무 중인 형부에게 군인의 길을 권유받기도 했으며 여자로서 남

다른 경험을 해보겠다는 생각 끝에 군 복무를 입게 됐다.

그녀는 2003년 공군 제 16 전투비행단 기자작전과 재난통제담당 장교로 군생활을 시작,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화생방 교관을 거쳤으며 현재 공군 내 2명뿐인 여군 화학장교다.

'남자가 되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듯 군인이 된 조 대위는 소위 시절 훈련 계획을 짤 때마다 요령이 부족해 눈물을 빼

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관학교를 갖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군생활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다.

부대 내 여군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데다가 출신학교까지 눈에 띠는 조 대위를 보는 주변의 눈길은 날다르다. 하지만 텔립함 그 자체인 조 대위의 성격이 항상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한다. 입관 후 연장 복무를 하고 있는 조 대위는 "특정 계급이 되고 싶기보다는 화생방 분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조부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나사렛대 강단서는 '초보교수' 강원래, 대중문화 첫 강의

가수 강원래가 나사렛대에서 겸임 교수로 임용되 5일 첫 강의를 했다.

'춤과 대중문화'라는 교양과목을 맡아 매주 6시간 강의하는 강 씨는 "이번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직접 춤을 가르치고 제가 경험한 대중문화에 대해 상세히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이날 오전 수강생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첫 수업에서 '왕의 남자'를 불지 리포트를 받을 지 결정하지

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시대에도 대중들이 즐기는 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러 장르의 춤 가운데 이번 학기에는 비 보이 댄스 등 길거리 춤 위주로 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이어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 인지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춤 실기를 볼지 리포트를 받을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춤 실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춤에 관심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수강생은 이번주 안에 과목을 바꾸길 바란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강원래 교수가 강의하는 '춤과 대중문화' 과목에 70명 넘는 학생이 수강 신청했다"며 "2학기에도 강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아드보 "영 프리미어리그 팀 맡고파"

2006 독일월드컵 축구에서 한국대표팀을 이끌었던 덕 아드보카트(60·상트페테르부르크) 감독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을 맡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5일 (한국시간) 네덜란드 유력지 '알레메네 다크블라드'와 인터뷰에서 "지금 내 큰 바람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지휘봉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잉글랜드 축구는 생동감이 넘친다. 사람의 일의란 앞으로 어떤 일이 달칠지 모르는 것"이라며 "당분간 네덜란드에서 감독을 맡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기술이사직과 같이 책상에서 일하는 것은 관심없다. 내가 설 곳은 오로지 경기장"이라고 강조했다.

금곡팜스테이마을, 협동조직대상 본상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제 23회 협동조직대상 팜스테이부문에서 본상(상금 300만원)을 수상한 광주농협 신하금곡팜스테이마을 퓨구증(오른쪽) 대표가 5일 신성수농협광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고 있다.

토공·전본부 '청렴실천 결의대회'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한우석)는 5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확산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윤리경영 ▲고객성공 ▲사회공헌 ▲부패방지 ▲청렴실천 등 5가지 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삼한지 테마파크에서 촬영된 마지막 전투신

신정훈 나주시장, 촬영 마친 '주몽' 제작진에 감사패·환송연

신정훈 나주시장이 지난 2일 나주시 공산면 삼한지 테마파크장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친 '주몽' 제작진 환송연을 열었다.

이날 고구려·부여 동맹군과 한나라 간의 전쟁 장면이 촬영됐으며 드라마 출연진은 6일 종영일정에 맞추기 위해 빛속에도 촬영을 강행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촬영을 마친 후 세트장에

서 주요 기관장 및 시민, 드라마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드라마 주몽의 성공적인 종영'에 따른 나주시민 감사 및 제작출연진 환송연'을 주재했다.

신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몽 드라마로 나주시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 효과는 물론 관광도 시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해

면서 "제작진과 드라마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와 보조출연자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신시장은 이날 드라마 제작사인 올리브나인과 초록뱀 미디어 대표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복성중 제 11회 동창회(회장 이석영) 월례회=12일(월) 오후 6시 보성녹차. 223-8589

▲복성중 제 12회 동창회(회장 서운희) 월례회=12일(월) 오후 6시30분 한우가. 373-2639

▲정제훈씨 별세 신귀례씨 상배

한진(서울 MBC)·요진씨 부친상=

발인 7일(수)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250-4405

▲김준태씨 별세 영일(삼성테크

원)·영현·영민씨 부친상=발인 7일(수)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250-4409

▲박찬순씨 별세 박종욱(사업)·종태(자영업)·재홍·은숙씨 부친상=

고재덕(회사원)씨 빙모상=발인 7일(수) 금호장례식장 401호. 227-4383

▲김철호(전 영암군수)씨 별세 영

용(전남도 문화예술과)·영천(전문

건설공제조합)씨 부친상 박연규(자

업)·이상곤(대한생명 무등지점)씨

빙부상=발인 7일(수) 영암군 서

호면 화송리 자택. 061-472-6868

▲홍경수씨 별세 윤춘자씨 상배

강석(학생)씨 부친상=발인 6일(화)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250-4412

▲김숙자씨 별세 강대빈(전 기업

은행 호남지역 본부장)·대형(전 공정위 부위원장)·대엽(용인 정신병원 부원장)씨 모친상 구제춘(구제춘 산부인과 원장)씨 빙모상=발인 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231-8903

▲박순심씨 별세 김정호(진도문화원장)·정운(광주시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씨 모친상 한필교(고려메디텍 이사)·허백규(건축업)씨 빙모상=발인 6일(화) 진도전남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1-544-4489, 016-626-4708

▲안명규씨 별세 재현(남도문화원 구재표·삼원정공 대표)·재준·지형씨 부친상=발인 6일(화) 해남종합병원 장례식장. 061-536-4440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개나리꽃 트색분야

전시회 521-1100